

### 1. 제조업 고용구조 변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산업분류체계도 지난 40여년 간 7차례에 걸쳐 변화하였다. 그런 탓에 산업분류 2자리 수준에서나마 일관성 있는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1993년 이후부터만 가능하다. 동 기간에는 산업분류와 직종분류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

1993년부터 2006까지 13년간 제조업 고용은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에 한정된 변화이다.<sup>1)</sup> 제조업 내에서도 화학·기계·전기전자공업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했다(그림 1 참조). 동 기간에 광공업에서 총취업자수가 62만 명 감소하였는데 고직능직 일자리는 27만 개가 증가하고 저직능사무직에서는 6만 개, 생산직에서는 83만 개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했다(그림 2 참조).<sup>2)</sup> 그 결과 제조업에서는 고직능일자리 집약도가 크게 높아져 고직능일자리 비중은 7.9%포인트 증가했다(표 1 참조).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이 기술개발 동기를 촉진하는 국제적 규범의 확산,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 좀더 높은 질의 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하는 방식으로의 소비자의 기호 변화, 제조공정 자체를 모듈화하고 전문화된 생산이 가능케 한 기술발전, 기업의 생산기지를 세계적 규모로 광역화할 수 있게 만든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은 협의의

\*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hurjj@kli.re.kr).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연구원(smjung@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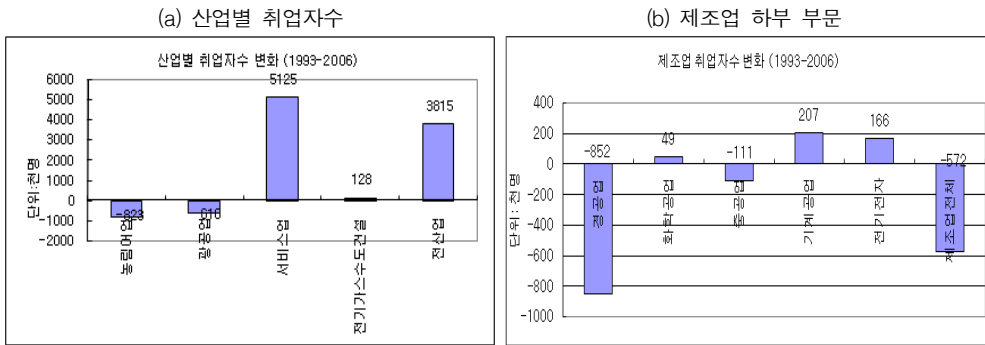
- 1) 여기서의 중공업 정의는 다른 문헌들에서 통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와는 차이가 있다. 7차 개정 표준산업분류 2자리 수준에서 각 범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경공업: 15~22, 36~37, 화학공업: 23~25, 중공업: 26~28, 기계공업: 29, 33~35, 전기전자: 30~32. 분석의 편의상 본고는 중공업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제1차 금속산업+조립금속제품 제조업>으로 한정하여 정의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다른 문헌들이 정의하고 있는 중공업 개념보다는 좁게 정의하였다.
- 2) 고직능직은 제4차 개정 직종분류체계의 대분류 번호 1~3, 사무직은 1~5로 정의하였다. 이와 일관성을 갖는 분류 기준을 제5차 개정 분류체계 기준으로 정의하면 고직능직은 대분류 번호 0~2, 사무직은 0~5가 된다. 이렇게 정의하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Delta\text{사무직} = \Delta\text{고직능직} + \Delta\text{저직능직사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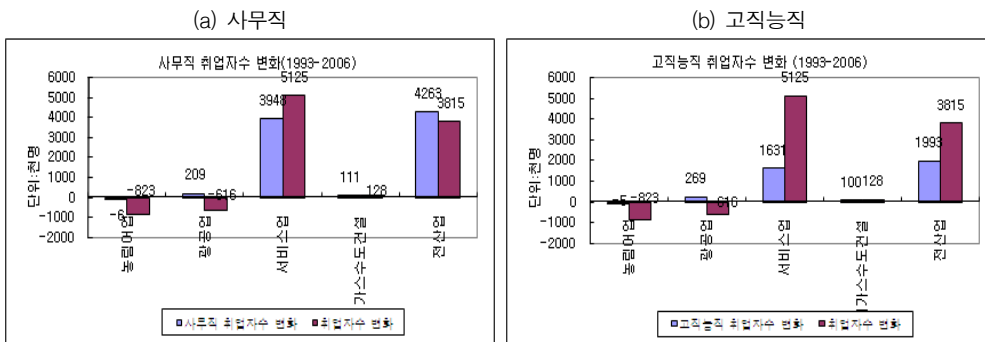
$$\Delta\text{취업자수} = \Delta\text{고직능직} + \Delta\text{저직능직사무직} + \Delta\text{생산직}$$

제조품 생산공정보다는 연구개발, 디자인, 고객관리, 소비자 금융 등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현저하게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제조공정 전단계화 후단계에 위치한 서비스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증가시켰다. 제조업 고기능일자리 집약도가 증가한 배경은 이러한 다양한 환경변화의 영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1993~2006)



[그림 2] 고기능직 및 사무직 취업자수 변화(1993~20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1> 고기능직과 사무직 취업자 구성비 변화

(단위: %, %p)

|      |      | 1993 | 1995 | 2000 | 2005 | 2006 | 1993~2006 증분 |
|------|------|------|------|------|------|------|--------------|
| 고기능직 | 전산업  | 15.3 | 16.4 | 18.9 | 20.9 | 21.4 | 6.1          |
|      | 제조업  | 9.7  | 11.3 | 14.3 | 16.6 | 17.6 | 7.9          |
|      | 서비스업 | 22.5 | 22.7 | 24.1 | 25.3 | 25.6 | 3.1          |
| 사무직  | 전산업  | 49.2 | 49.9 | 54.3 | 59.8 | 59.6 | 10.3         |
|      | 제조업  | 26.0 | 26.3 | 27.0 | 34.1 | 34.8 | 8.8          |
|      | 서비스업 | 77.3 | 76.5 | 76.2 | 78.4 | 77.2 | -0.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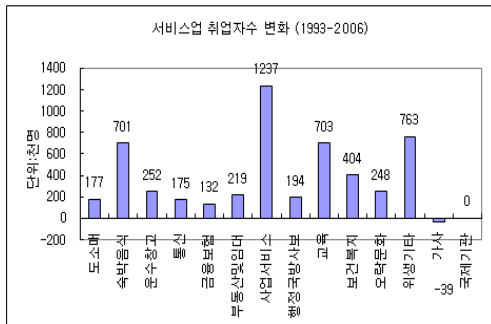
## 2. 서비스업 고용구조 변화

지난 13년간 서비스업에서 고용감소가 이루어진 업종은 가사서비스업이 유일하며 산업분류 2자리 수준의 모든 서비스업부문에 고용이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사업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다음으로 위생 및 기타/숙박음식/교육서비스업 순으로 고용 증가가 많이 이루어졌다(그림 3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업에서는 여전히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고용 비중이 가장 높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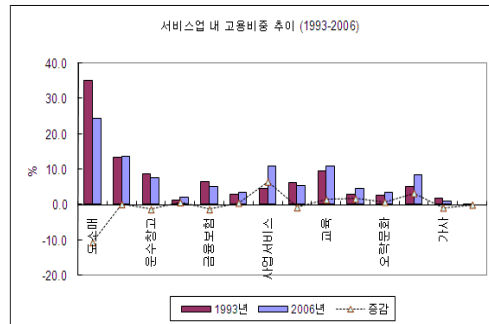
분석기간 동안 서비스업 전체에서는 취업자수가 513만 명 증가했는데 그 중 고직능직 일자리 증가는 163만 개였고 저직능사무직은 395만 개 증가했다. 생산직은 고직능직 개수보다 적은 118만 개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서비스업의 고직능일자리 비중은 지난 13년간 2.8%포인트 증가했다.

2006년의 우리나라 서비스업 취업자수 비중은 66.1%로서 2002년의 일본이탈리아 스페인의 서비스업 고용비중과 유사한 수준이며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에 속한다(그림 5 참조).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도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OECD국가 중 가장 낮다(그림 6 참조). 우리나라의 서비스 생산과 수입, 그리고 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재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그 비중이 낮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또한 OECD국가들 중에서는 현저히 낮은 그룹에 속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특성은 서비스업에서 생성되는 일자리의 수와 질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KLI**

[그림 3] 서비스업 취업자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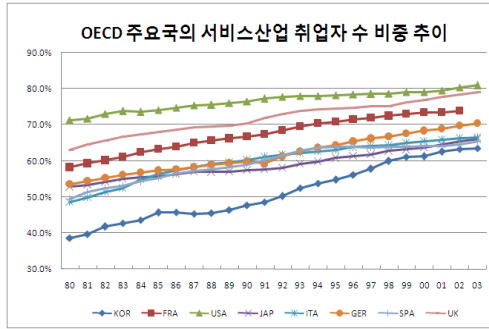


[그림 4] 서비스업 취업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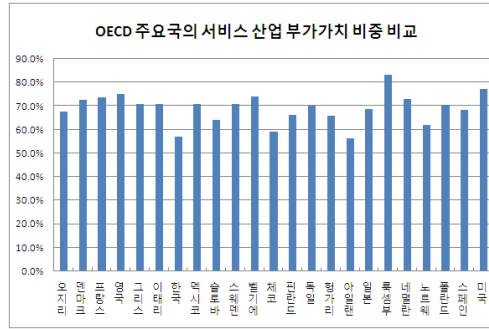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5] 서비스산업 취업자수 비중 국제비교



[그림 6]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2003)



주: 독일의 경우 1990년까지는 서독, 1991년 이후는 통일독일.  
 자료: OECD STAN database 2005.